



**B O A R D O F S T U D I E S**  
NEW SOUTH WALES

**2012**

**HIGHE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 **Korean Background Speakers**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A and Part B)

## **Transcript**

**Familiarisation Text**

진호:        또 시작이다. 지금은 받아 줄 기분이 아니거든. 그만해. 사실은 우리  
               아빠가 이민가재.

예슬:        그냥 말로만 그러시는 거겠지. 사오정이다 오륙도다 해서 40대 50대  
               분들이 회사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겠지.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A**

**Question 1**

이효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영화배우 장근석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근석씨?

장근석:        안녕하세요? 이효리씨.

이효리:        영화출연하랴 가수로 노래부르랴 가뜩이나 바쁜 데 ‘청소년 인터넷  
               사용 홍보대사’라는 일까지? 의외인데요?.....

장근석:        [확신에 찬 커다란 목소리로] 이런 일을 하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효리:        네, 무슨 특별한 동기라도 있으신가요?.....

장근석:        [목소리가 작아지며] 제가 사실은 과거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신  
               후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살았어요. [비통한 감정이 실리며] 그러다가  
               휴, 방구석에 갇 박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져버렸지요.

이효리:        그래요? 장근석씨에게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거가 있었군요?

장근석: 얼마후 아버지와 다시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인터넷 게임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결국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때는 눈을 뜨면 새벽이 올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낮에는 잠만 잤어요.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고 친구는 당연히 한 명도 없었어요.

이효리: 어머, 저는 장근석씨가 한국 예술 대학을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장근석: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이효리: 이 세상에 아버지치고 자식 위해 수고 안하시는 분 있나요?

장근석: 여름이면 저를 데리고 물고기나 다슬기를 잡으러 계곡을 찾아 다녔어요. 가을엔 이산 저산을 데리고 다니며 명상과 산행을 통해 집중력과 체력을 키워주셨습니다.

이효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장근석: 아버지께서 틈만나면 저를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마침내 저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고졸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까지 들어갔구요.

이효리: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그런 일은 청소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근석: [힘있고 우렁찬 목소리로] 그렇게 힘든 일이 우리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기꺼이 홍보대사 역을 자청했습니다.

이효리: 지금은 한류스타로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장근석씨의 뮤직비디오 2집 ‘즐거운 인생’은 왜 들고 나오셨나요?

장근석: [경쾌하고 빠른 속도의 목소리로] CD 노래가사중에 ‘이제 고개를 들어, 그건 지나간거야, 이애~’하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제 지나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 그걸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효리: 그렇군요. 그럼 이제 들어봅시다.

##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 Part B

#### Question 2, Text 1

- 은경: 벌써 세번째 뵙네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 탈북자: 그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와 탈북하며 고생을 많이 해 아픈 곳이 많아요.
- 은경: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북한에 계시는데, 지금 살아계시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소식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사라도 알아 볼 방법이 없을까요?
- 탈북자: 우리 식구들 소식도 모릅니다. 통일이냐 되어야 모를까 현재로서는 은경이 할아버지 소식은 알 길이 없어요.
- 은경: 살아계시다면 만나서 큰 절을 올리고 푸짐한 생신상을 엄마 아버지와 함께 차려드리고 싶은데. 통일은 언제나 되려나..... 아저씨처럼 여기 호주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가족들과 함께오나요?
- 탈북자: 나처럼 혼자 오는 사람도 있고,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가 있을 때 나온 자식을 데리고 호주까지 혼자 이민오는 여자도 있지요. 여럿이서 움직이려면 힘들고 위험하기도하여 따로따로 나오다 보니 그냥 생이별을 하게 되는거죠.
- 은경: 아저씨는 중국에서 육로로 캄보디아까지 가셨다 했죠?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다고 하셨는데 그 중 무엇이 가장 어려웠어요?
- 탈북자: 발각되어 다시 잡혀갈까봐 숨어다니는거죠. 중국에서도 늘 숨어 살았고 신분증이 없으니 공안원에 잡힐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죠.
- 은경: 호주는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잘 돼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아저씨, 더이상 먹고사는 것 때문에 고생은 안 하시죠?
- 탈북자: 그렇긴하죠. 직장을 구할때까지 여기 호주인과 똑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나만 탈북해 잘 먹고 편히 사는것 같아 북에 있는 가족이 더욱 그립고 미안해집니다.

은경: 몸도 편찮으신데 괜한 질문으로 제가 아저씨 기분을 상하게 했나봐요.  
오늘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아저씨에게 재미있는 얘기거리를 가져올게요.

탈북자: 그래요, 은경이도 시험 잘 보고요.

##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 Part B

#### Question 2, Text 2

이산 가족이라하면 6.25 이후 갈라진 가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이산가족 범주에는 새터민의 북에 남은 가족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이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에 비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약합니다.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사람이다’라는 편견에서 우리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터민을 이등 국민으로 취급하는 현상을 없애려면 정부 주도하에 있는 새터민 지원체재를 민간차원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렇게함으로써 가족 상봉의 길을 현실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그들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아무런 편견없이 따뜻한 동포애와 인류애로 그들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제출한 가족은 12만8천 여 명이었는데, 이중 현재 8만여 명만 생존해 있습니다. 그나마 생존자 중 7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어 이산가족 신청자중 매달 300명 씩 운명을 달리하게 되어 그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우리의 기억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 군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일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